

강진군, 서민 생활 안정·경제 활력 예산 신속 집행

상반기 보고회 집행, 실적 점검 부서별 실적 부진 원인 진단 등 대체사업 발굴 보완 방안 논의 지역 핵심 재정 운영 전략 수립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일 강진군은 전남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병철 강진 부군수 주재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전 부서장이 참석해 담당 부서별로 개별 사업의 집행 계획, 실적, 집행 부진 원인,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재정 운용 전략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시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예산의 신속한 투입이 군민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만큼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13일 기준 집행 실적을 토대로 각 부서장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설명하고 BF 인증 지연,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등 다양한 집행 부진 사유를 공유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대체사업 발굴이나 예산 전환 등을 통해 부진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는 “정책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집행은 단순한 예산 소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집행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예측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집행을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진=김윤복 기자

선임직 이사 공개 모집 담양군문화재단

(재)담양군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재단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비상근 선임직 이사 7명으로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여 취약성별을 20% 이상 선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4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재)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청,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 등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문화예술·관광·교육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된 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자,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이며 학력 및 전공 분야 제한은 없다. 선임직 이사 추천을 위한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damyangcf.or.kr)을 참고하거나, 재단 임원추천위원회(061-383-8241)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신재현 기자

해남군, 아동센터 청소년 AI 교육 학습기기·전문 강사 활용 지원

전라남도 해남군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본격화하며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5개소를 시범 운영해 2028년까지 해남군 내 전체 24개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블릿, 딥코봇 등 AI 학습기기와 전문 강사를 활용해 아동들이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등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며 2025년에는 약 7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으로 미래 산업기반에 걸맞은 지역 인재 양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 시기부터 AI 교육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아동들이 해남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이용권 최대 50% 할인 이벤트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2025 완도 방문의 해’ 기념과 여름철을 맞아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파격 이벤트를 준비했다. 19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해양치유 테라피를 통해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할인은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 50장 구매 시 최대 60%,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권 20장 구매 시 40%, 30장 이상 구매 시 50% 적용되며 디럭스 프로그램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성수기 시즌을 고려해 오는 7월 1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현장 판매한다. 공단은 할인율을 높인 만큼 장기 이용객 유입 및 개인·단체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빈 이사장은 “할인권 판매는 해양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해양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단순한 관광이 아닌 건강 증진과 관광이 어우러진 힐링 콘텐츠인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 18일 영암군 학산면 사등마을 들녘에서 유기농 트리티케일 종자가 수확됐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유기농 트리티케일 종자 수확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사등마을 들녘에서 지난 18일 전국 최초, 유기농으로 재배된 트리티케일 종자가 수확됐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로, 추위 속에서도 잘 자라고, 깊이 뿌리틀 내려 재배 토양의 지력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수확하지 않고 자란 그대로 갈아엎어 땅에 환원하면 식물성 친환경 퇴비인 녹비로 기능해 토양 건강을 높여준다.

화학비료나 다른 퇴비 없이도 지속가능한 재배 토양을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수확은 영암 농가와 농촌진흥청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수확된 트리티케일은 학산면 시범포장 1650㎡에서 농업과학원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생육 상태와 재배기술을 검증했다. 총 수확량은 약 700kg으로 시범포장에

서 재배한 사정을 고려하면 우수한 실적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유기농 방식으로 식물성 비료인 녹비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해 앞으로 확대 재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수확된 종자 일부는 농업과학원에 연구용으로 제공되며, 나머지는 생협 ‘한살림’에서 친환경 농업 재료로 농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농업진흥청과 영암군은 학산면 신안정마을 등 약 13ha로 트리티케일 재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재향군인회 여성회 반찬나눔 봉사 활동

전라남도 강진군재향군인회 여성회가 지난 16일 강진읍사무소 3층 조리실에서 ‘사랑의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는 강진군재향군인회(회장 김영성) 회장단과 부회장 여성회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영양을 고려해 정성껏 준비한 소고기 잡채, 한우 불고기, 버섯·파프리카 볶음, 목이버섯 나물 등을 직접 조리하고 포장했으며 관내 8개 보훈단체를 통해 이를 보급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협력해 추진한 사례로 유공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공동체적 연대감을 실천한 의미 있는 행보이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과 보훈 인식 제고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강진군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위문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과 복지인프라 확충 등에도 행정적 뒷받침



강진군재향군인회 여성회원들이 지난 16일 강진읍사무소 조리실에서 소고기 잡채 등 반찬을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반찬은 관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전달됐다. 강진군 제공

을 이어가고 있다. 황숙경 강진군재향군인회 여성회장은 “오늘의 작은 정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

신 분들께 진심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과 함께 공동체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토지매수 현장민원실’ 운영 23일부터 화순군 이서면 등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지역 토지매도를 원하는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영산강·섬진강수계내 주암호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청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토지매수 현장민원실’을 202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반기별 1회씩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대상 지역은 광양시 진상면 비촌·신항마을(23일), 화순군 이서면 보월·산사마을(24일), 보성군 문덕면 법화·내동마을(25일) 6곳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담당 직원이 일대일로 상담·신청·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매수토지 관리와 관련된 불편 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맞춤형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질 개선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